



민영일  
(울산의대 교수)  
급성위염

소화가 잘 안되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위염"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어떤 분들은 "다른 병원에서 위염이 심하다고 했는데 왜 선생님은 괜찮다

여름에는 부패된 음식을 먹는 등 부주의한 식사로 인하여 식중독을 일으켜서 배가 아프게 된다. 이런 것들은 모두 급성위염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을 모르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하면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자기 혼자만 급성위염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때 내시경으로 위점막을 관찰하면 위점막이 매우 심하게 發赤되며 부어있고 삼출

많으며 이 만성위염은 위암과 관련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만성위염은 급성위염이 오래되어 생기는 것이 아닌 전연 다른 위점막의 변화이지만 아직도 그 원인에 대하여는 모르는 부분이 많다.

만성위염은 흔히 육안적으로 표재성위염, 위축성위염, 비후성위염, 화생성위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섞여서 나타나게 되며 주된 병변이 무

구미인은 매우 적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결국은 위암을 일으키는 모지가 되는 점막 변화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런 위축성 위염이 되어 가는 도중에 위축된 부위에 소장 점막에 유사한 세포가 대신 자리잡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化生이라고 하며 이런 화생성 위염도 위축성위염의 한 부류로 생각된다. 위축이 심하게 되면 위산분비세포의 수가 감소하게 되므로 위산분비가 적어지거나 무산증이 된다. 연세가 많은 분에서 위산분비가 적은 것도 이런 이유이다.

이런 만성위염은 실제로 환자가 어떤 일정한 증상을 가지지 않으며 막연한 소화불량이 흔하다. 예전에는 무산증이던 증상이 심한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회염산액을 복용시킨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인정한다. 또 만성위염에 관하여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 흡식 치료를 하여서 소화불량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만성위염이 소실되고 정상으

사를 받도록 권하고 있다. 간혹 20, 30대의 젊은 나이에도 위암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위축성 위염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이든지 그 빈도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다. 만성 위염중에는 만성표재성위염이나 비후성위염은 위암과는 별 관계가 없다. 원래 위속에는 염산성분으로 된 위산이 있어서 세균이 자라지 못하는데 수년전에 위점막 속에서 위산에 저항하여 기생하는 세균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어 그 세균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elicobacter pylori)라고 하였다. 이것은 십이지장 궤양과 같은 소화성 궤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위의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진행되면 위축성위염을 일으키며 나아가서 위암발생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다행히 이 균은 항생제나 강력한 제산제를 복합하여 약 2주 정도 사용하면 근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성인의 60~90% 정도는 이 균에 이미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누구든지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이 균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곧 오게 될 것이다. 만성위염은 확실히 중요한 질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 급성위염은 특별한 치료없이도 안정하면 되나 고열·복통·토혈시 등은 전문의와 상의해야

고 하십니까?"하고 필자에게 크게 항의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은 어디에 염증이 있다고 하면 마치 피부에 종기가 생기는 것처럼 곪아서 터지게 되는 화농성 염증을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위염이라고 하면 위가 곪아서 그대로 두면 터지게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많다. 원래 "염증"이라는 말은 우리 신체 조직에 맞지 않는 어떤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 신체 조직에 나타나는 부종, 염증세포의 침윤, 궤사, 섬유화 등 여러가지 변화를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병리학적 용어이다. 이때 몸에 맞지 않는 물질은 매우 다양하여서 바이러스나 세균일 수도 있고, 음식물에 들어 있는 독소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체내에서 스스로 만들어 내는 소위 자가면역반응물질일 수도 있다. 아스피린과 같은 진통제를 조금만 복용하여도 속이 아픈 분이 있다. 과음하고 난 후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메스꺼우며 배가 아프게 된다.

물이 덮히며 군데군데 점막이 벗겨져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길게 패여서 궤양이 생기며 드물게는 이런 곳에서 출혈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급성위염이 발생되면 입맛도 없어지며 상복부가 매우 아프고 특히 음식물을 먹으면 더 아프게 되며 메스껍고 토하게 되어 만사가 귀찮고 정말로 살맛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때 사람들은 흔히 음식을 잘못 먹어서 체했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런 급성위염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부드러운 죽을 먹는 등 안정하면 2, 3일 내지 일주일 쯤 되면 저절로 증상이 없어지게 된다. 단지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복통이 있거나, 고열, 황달, 오한, 토혈, 하혈 등 이상한 증상이 동반되면 단순한 위염이 아닌 맹장염, 담낭염 등 다른 중요한 질병이 생각되므로 즉시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엇인가에 따라서 분류하게 된다. 이 만성위염중에는 위축성 위염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위점막 내에 존재하는 위산분비세포와 위소화 효소분비 세포가 위축되어 없어지게 되고 위점막이 얇아지게 되며 내시경으로 관찰하면

### 마땅한 치료법없이 정기검진으로 예방이 최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발견 치료의 새후열어 남성에 흔한 위축성위염은 위암 일으키는 원인

위점막이 점점 회백색의 색조를 띄게 되며 마치 쥐가 뜯어 먹은 것 같이 위점막의 불규칙한 변화가 나타나며 이 부위가 위(胃)의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상부쪽으로 진행되어서 퍼져나가게 된다. 그런데 이런 위축성위염은 위암이 많은 나라인 일본, 우리나라, 칠레 등의 국민에게 흔하며 남자에서 흔하며

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만성위축성위염에서 발생되는 위암은 남자에서 여자보다 두배정도 흔하며 52세 정도가 가장 흔한 나이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위축성 위염이라고 특별히 기재할 정도의 심한 경우에는 위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며 필자는 40세 이전에는 2년에 1회, 50세 이후에는 매년 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신비한 질환이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가능하게 될 때에야 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인 위암의 문제도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행히 최근에는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출현하여 위염의 실마리를 푸는데 있어서 한줄기 서광을 비춰주고 있다.

#### 만성위염

한편 위속에는 만성위염도

한일약품

## 일본제약시장을 1년만에 석권한 성인병예방 치료제

# 메바로친

메바로친은 혈액의 흐름을 막아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지방)을 제거하는 획기적인 신제품입니다.

**동맥경화와 콜레스테롤**  
동맥경화는 동맥내벽에 생겨난 손상 부위에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방이 침착되어 소위 "플라크"라는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동맥내벽을 좁게 만들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동맥경화증은 자각 증상없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소리없는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동맥경화와 합병증**  
●뇌졸중(중풍)  
뇌혈관의 동맥경화로 뇌동맥이 좁아져

혈액순환이 줄고 뇌에 필요한 충분한 혈액과 산소공급이 방해를 받아 생겨나는 질환으로 콜레스테롤수치를 낮추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심장마비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혈액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로 호흡관란에 의한 통증및 쇼크사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협심증  
심장의 혈액순환이 나빠진 결과로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고 죄는듯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의 새로운 도전 "메바로친"**

●메바로친은 89년 일본에서 개발된 최신했약품으로 월 70억엔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요이상으로 인체내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배설시킵니다.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간장에서만 작용하여 타장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메바로친**  
표준소매가격 : 55,000원(50T)

본제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로는 본사 PM4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TEL:(02)464-0861 교환 584